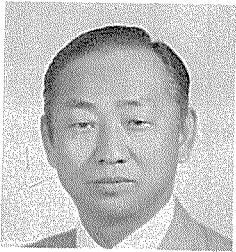


## 電子工業의 高度化를 더욱 倍加



姜 晋 求  
韓國電子工業振興會 會長

今年은 大韓航空機의 被擊 格추사건, 버마 아웅산 暗殺爆發 事件 등 共產徒輩들의 極惡無道한 만행이 세계 도처에서 수없이 恣行되었던 매우 多事多難한 해였으나 國國民의 단합된 힘과 슬기로운 智慧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第2의 經濟跳躍을 위한 활력에 찬 발걸음을 더욱 다져간 한 해였습니다.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希望에 찬 甲子 새해를 맞는 送舊迎新의 시점에서 지난 83年을 돌아볼 때 우리 電子電機 業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前年對比 約 30%의 높은 生産 및 輸出伸張을 실현하였음은 오로지 會員社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정으로서 이 기회를 빌어 敬意를 표합니다.

지난 1年을 海外市場 與件面에서 본다면 主宗 輸出市場인 美國市場에서 컬러TV는 이미 덤핑 豫備判定이 내려졌으며 對英 黑白 TV 수출자율 규제협상 등은 매우 각박한 일면을 드러내고 있고 美國을 비롯한 交易相對國의 輸入開放 압력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美國, 日本 등의 先進 電子工業 國家의 技術革新은 일취월장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技術移轉의 忌避傾向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後發 開途國의 덤핑 輸出攻勢는 더욱 度を 더하여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電子工業의 高度化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한층 倍加토록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電子業界는 금년 들어 모처럼 일기 시작한 景氣回復의 여세를 더욱 定着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다소 沈滯되었던 老朽施設 改替와 自動化 施設 및 研究開發 투자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集中하여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數年 동안 大企業體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半導體, 컴퓨터, 通信機器를 비롯한 尖端技術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新技術의 導入, 消化改良에 많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은 우리의 취약한 生産기반 확충에 밝은 前兆로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왕성한 投資意慾은 아직도 취약한 部品, 素材의 品質向上과 國産化의 노력에 이어져 굳건한 기반확충이 다져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業界의 노력에는 先進 電子工業國의 開發 예에서 보았듯이 상당 기간 동안 政府의 核心部門과 脆弱分野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것은 業界의 創造的 노력과 技術革新을 創出할 꾸준한 開發 노력과 합쳐져 電子立國의 웅대한 꿈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先進 대열 참가를 위한 前進과 發展의 어렵고도 힘겨운 路程에서 우리 電子工業 振興會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때로는 앞에 나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작은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무는 癸亥年을 맞이하여 會員業體의 사업계획과 소망이 더욱 알찬 結實을 이루도록 충심으로 바라며 아울러 여러분과 家庭에 더욱 多福하심을 祈願 합니다.